

서울시 준하는 '대구경북특별시', 2026년 7월 출범 목표

4자 회동 갖고 공동합의문 서명
이견 중 행안부 중재안 제시에 탄력
대구, 안동, 포항시 청사 활용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5

무산 위기에 놓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면서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 전격 출범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 이들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

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고, 지난 8월 말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중단되는 듯했다.

그러다 행안부가 최근 대구와 경북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입장을 내놓으면서 통합 추진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공동 합의문을 보면 대구와 경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이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간 7가지 합의 사항도 담았다.

우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 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대구경북특별시관할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광역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도 부여한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청사와 관련해

서는 현재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해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밖에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양시·도 의회의 건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사히 합의하게 돼 다행"이라며 "특별법은 의원 발의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계기로 부·울·경 등 다른 지자체도 통합해야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남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김성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완도군

청년사업가에 1만원 상가 임대

완도군 완도읍에 청년 사업가를 위한 월 1만원 임대 상가가 문을 열었다.

청년 상가 '완생'은 완도군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으로 추진했다.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완도읍 구도심의 4층짜리 빈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청년 상가는 총면적 445.99㎡에 점포 7실, 휴게 공간 1실로 구성됐다.

상가 임대료는 월 1만원이며 상가 계약 기간은 기본 2년,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전남도

여의도 한강공원서 '소금박람회'

올해로 16번째인 소금박람회가 전남도와 영광군, 신안군이 공동 주최로 내달 1일부터 사흘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개최된다.

전남은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천일염 본고장이다. 특히 세계 최고의 명품 천일염 생산지로서, 그 가치와 위상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기존 실내 홍보관과 직거래 부스 방식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과 보고, 먹고, 사고, 쉬고, 즐기는 오감만족 체험이 가능하도록 야외에서 소비자를 맞는다.

박람회는 주제존, 힐링·체험존, 오락존, 3개 테마관으로 구성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울산과학기술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울산과학기술원(UNIST)가 교육부 '2024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 4년간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UNIST는 2021년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을 개설하고, 202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돼 매년 65명의 석·박사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국비 지원은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구축, 교육과정 개발 등에 사용된다. 울산시도 2025년부터 3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해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합천군

내달 합천초 전선로 지중화 착공

합천군은 내달 1일부터 합천읍 합천리 일원에서 합천초등학교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한다.

사업 구간은 합천초등학교 인근으로, 총 400m 길이의 전선 및 통신선로가 지중화될 예정이며 오는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9월 한국전력·통신사·합천군 간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진행설계를 완료했으며 8월 26일 도로굴착작업이 완료돼 11월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합천(경남)=이도식 기자

목포신항, 베스타스 투자계획 무산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 '떡구름'

'글로벌 1위 터빈사' 베스타스
금리인상·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파

전남 목포신항 배후단지내 대규모 글로벌 해상풍력 터빈공장을 건립키로 했던 글로벌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의 투자 계획이 1차 무산됐다. 세계 해상풍력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여파로,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유치 다각화와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목포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체 공개모집'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기업체 선정 작업이 결국 무산됐다. 2021년 12월, 2022년

2월에 이은 3년 새 세번째 유찰이다.

당초 참여가 유력시됐던 덴마크 베스타스는 내부 사정상 결국 불참했다. 베스타스는 글로벌시장 침체로 폴란드 슈체친 터빈 조립공장 구축도 연기했다.

금리 인상과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과 정책 불확실성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금융 비용이 크게 증가,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특정 기업에 올 인하기 보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기업유치 다각화가 필요하고, 국내 법적, 제도적 걸림돌 제거에도 속도감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2024년 경북도 직업계고등학교 해외 우수 유학생 직무소양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북도, 고등학교 外인 유학생 유치 박차

8개 직업계고, 내년 70명 유학생 모집

경북도내 고등학교들이 2025학년도에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크게 늘린다.

2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도내 8개 직업계고에서 베트남 42명, 태국 8명, 인도네시아 6명, 몽골 14명 등 4개국 출신 7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현재는 이들 8개교에서 48명,

일반계고인 김천고에서 8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직업계고들이 내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올해보다 45.8% 늘리기로 한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인 김천고는 100% 늘릴 방침이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포항)는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남학생 4명을 뽑았으나 내년에는 6명으로 2명 더 늘린다.

/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 개통 지연

무안공항 활성화 등 차질 불가피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던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광주송정~목포' 구간이 당초 계획보다 최대 2년 가량 늦춰질 위기에 놓여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광주송정~나주 고막원~무안국제공항~목포 임성리를 잇는 호남고속

철도 2호선 개통시점을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기로 했다. '2015~2025년'이던 2단계 사업 기간도 '2015~2027년'으로 수정됐다.

총사업비도 2조5889억 원에서 2211억 원 증액된 2조8100억 원으로 변경됐다.

2단계 공사현장 내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유적이 발견된데 따른 것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관계 기관의 판단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남도, 다양한 '이스포츠 대회' 연말까지 쭉

'경기장 오픈 기념대회' 등 예정

경남도가 연말까지 다채로운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오는 26일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 오픈 기념 대회' 본선 경기가 열린다.

발로란트, FC온라인 결승전뿐만 아니라 유명한 전 스타크래프트 선수 홍진호와 도재욱의 사인회, 가수 매드 크라운 축하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가 마련돼 있다.

경기장 개장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가 경남의 이스포츠 대회를 브랜드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중·고등학교 이스포츠 리그전은 내달 23일, 경남 직장인 이스포츠 대회는 12월 7일 각각 개최한다.

올해 내년 새로 개최되는 경남도지사배 이스포츠 캠퍼스대항전은 이스포츠 특별대전과 함께 11월 30일 동시에 진행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